

지역 소식통

부안군, 부안 관광택시 이용 지원금 확대

부안군은 지난 3일 부안 관광택시 요금을 조정하는 고시를 통해 관광택시 이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이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3시간 코스는 변동이 없으나 5시간 코스는 6만5천원에서 6만 원으로, 6시간 코스는 7만5천원에서 7만 원으로 변경되어 관광택시 이용자의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운영 3년째를 맞는 부안군 관광택시는 부안군 구석구석 다양한 관광지와 맛집 소개는 물론 관광객 개별 일정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

고창군이 8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고창방문의해 조직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관광업계 종사자 약 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를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2차례에 걸친 선포식을 시작으로 제1회 고창 벚꽃축제, KBS 열린음악회 유치, 유네스코 7가지 보물 등재 고창 기념행사, 한여름밤의 페스타 등 연중 끊임없는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고창군민의 매력을 뽐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써왔다. 더불어 다채롭고 다양한 홍보활동도 이어졌다.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전군민이 함께하는 3대 운동을 통해 고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심어줬다. 특히 성과보고회에선 '고창 방문의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유공자 20여명을 선발해 표창패를 전달했다.

고창군은 2024년에도 지난 1년동안 이뤄온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발전된 관광산업 구축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상생일자리 사업 추진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발굴... 생계안정 도모

정읍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 1단계 상생일자리 및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발굴해 고용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1단계 상생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103개 사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난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모집했다.

모집 기간동안 총 277여 명이 지원했으며, 그중 가구소득과 부양가족 수, 참여 횟수, 재산 등 선발기준에 따라 157명을 최종 선발해 103개 사업장에 배치했다.

일자리 분야는 △행정업무지원 △민원 서비스 지원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도시공원 환경정비 등이다. 참여자들은 8일부터 4월 12일까지 67일간 근무하게 된다.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지역아동센터 외

국어교실 운영 △왕술발 공동체 정원 운영 △구절초 공원 진입로변 꽃길 조성관리 △장곡이 정원 조성관리 등 총 5개 사업에 9명의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일자리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장 "시민 감동 받을 수 있는 친절 적극행정을"

영상 간부회의 진행

정읍시는 8일 전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학수 시장은 "인사 이동 이후 빈틈없는 인수인계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 지연이나 업무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인수인계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이어 "올해는 시민들이 감동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며 "특히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나 행정정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각종 공사를 철저히 추진해 올해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이학수 정읍시장은 8일 전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올해 진행하는 각종 공사를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히 해야 한다"며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올해 다가오는 동절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지난해 목표액 6억원 초과 달성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첫해 목표액 6억원을 초과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000명 이상의 기부자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6억원 상당을 지역에 기부했다.

고창군은 세액공제와 함께 고향의 우수 농수축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을 내세워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재외군민과 지역 학교동문, 관계인구층으로부터 큰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행 초기에는 지역 출신 인사들의

기부한도 최고액인 500만원 기부가 주를 이뤘다. 하반기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면서 연말정산을 앞둔 30~50대 직장인인 10만명대 기부자가 전체 기부자의 79%를 차지했다. 고창군은 올해 10만원 기부금의 30%인 3만원대 답례품의 고급화, 차별화를 통해 직장인 기부자들의 참여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특히 고향 지역 답례품 포인트 사용액도 1억4000만원을 넘어서 지역 농수축특산물의 홍보와 판로개척에도 큰 효과를 내고 있다.

고창군은 현재 78개의 답례품을 발

굴해 운영 중이다. 향후 청년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의 답례품을 추가로 찾아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농가의 상생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한 해 많은 향우와 동문,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원 속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며 "올해는 특정 현안 기업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하고, 행복하고 활력넘치는 고향군을 만드는 기업사업을 통해 고향 발전에 대한 기부자들의 열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인구순유입 증가 '주목'

지난해 11월 인구 순유입 92명, 12월 61명 등 인구 순유입 이어가

고창군의 인구가 최근 4개월여간 전 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은 인구순유입을 이어가면서 주목받고 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2023년 9~12월 고창군의 전입인구는 1577명에 달했다. 반면 전출은 1372명으로, 4개월째 '전입초과 현상'을 이어갔다.

고창군의 인구 순유입은 농촌지역 인구증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고창군은 다른 농촌지역과 비슷하게 같은기간 출생(35명)보다 사망(88명)이 훨씬 많은 '자연적 감소'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실버타운 등 등 정주여건 개선이 이뤄지면 타 지역에서의 유입이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부터 고수향산·무장 공공임대주택, 고창물계 고령자복지주택, 서울시니어스타워 등 규모있는 주택단지 입주자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신원력산업단지 유치 등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꾸준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까지 더해지면서 고창에 대한 관심도와 더불어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지원, 귀농인 영농정착금, 농가주택수리비와 같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여건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전입장려금을 비롯해 2023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결혼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도 확충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택단지 입주예다 민선 8기 들어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기업 유치 등에 탄력이 붙은 것이 전입인구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 같다"며 "기존의 인구유입 정책에 더욱 강화해 사람이 몰리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유해 야생동물 시민 피해 예방 사업 추진

농작물 피해·치료비 최대 500만원, 장례비용 최대 1000만원

정읍시가 시민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을 돕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더욱 강화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철새,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당 피해액의 80%(최대 500만원)을 보상한다.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는 치료비 최대 500만원과 장례비용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시는 농작물·인명피해 보상금으로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여러 농민들이 보상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겨울철 철새피해에 대비하고자 국비사업인 생태계 지불체 서비스 사업에 응모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능형철제, 태안관) 설치 지원한다. 총기 포획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80%를 총기포획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60%를 지원한다. 또 2100만원을 들여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는 겨울철 포획강화를 위해 3명을 증원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수렵장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수렵인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물론, 전국 수렵인들이 정읍에 장기체류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겨울철 수렵장 운영 등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 외에도 신규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